

King Lear에 나타난 Lear의 자아발견의 양상

김 수 중

(사범대 영어교육과)

송 일 상

(사범대 영어교육과)

차 례

1. 서 론
2. Lear의 정신적 수난의 과정
3. Lear의 자아발견의 양상
4. 결 론

1. 서 론

비극은 고난과 고통에 대한 주인공의 의연하고 고결한 반응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비극에 있어서의 고난은 그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것이며, 비극은 단순히 주인공의 고통이나 고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난을 견디고 이겨 나가는 데 있어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비극에 있어서 크게 부각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주인공의 인간적인 확대를 나타냄으로써 작품 전체는 조화를 이루고, 또한 주인공의 고난과 궁극적인

패배를 통해서 그 인간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것이라면, 단순히 고난을 견디고 이에 저항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 자신의 비극적 결함을 깨닫는 것은 비극의 불가피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기에서 비극의 주인공은 그의 욕망과 현실, 주관적인 의지와 객관적인 현실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갈등과 환상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깨닫는 것이야말로 더욱 중요한 주인공의 일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주인공은 비극적 결함의 원인이 되는 오해, 오판, 과오를 근본적으로 깨달음으로써 진실로 승화된 인간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인공은 깨달음의 능력을 갖추므로써 그 독특한 성격에 있어서의 완결성과 복합성을 지니게 됨으로 더욱 포괄적인 인물로 표출되고 작품 전체를 승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 작품의 우수성은 주인공이 겪는 고난의 정도와 그의 깊은 자각능력으로 나타나는 비극적 내용의 규모와 깊이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극은 한가지의 행위를 묘사한 것이며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예술작품으로서의 행위의 묘사는 그 자체로써 하나의 전체성과 완결성을 지녀야 한다. 바로 이러한 완결성을 '깨달음(reconciliation)'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Shakespeare의 작품의 독특한 주제가 되어 있는 비극적 행위를 마무리 지음과 동시에 주인공의 성격을 나름대로 완성시키는 결말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극적 주인공의 자아발견의 과정은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통한 내적갈등의 경험이라는 과정을 겪어서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A.C. Bradley도 비극의 효과를 지적하면서 Aristotle이 얘기한 'catharsis'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깨달음의 양상을 'a feeling of acquiescence'라고 지적하고 있다.¹⁾ 이는 고전비극에 있어서의 catharsis보다 훨씬 차원높은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비극적 양상이 Shakespeare 비극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선 고난의 과정에서 고전극에 비해 악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렬하게 표출되어 주인공 자신의 과오나 죄의 대가도 현저하게 드러난다. 또한 고전극에서는 운명적인 고난으로 인해 파

1) A.C. Bradley,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Macmillan, 1974), p. 26.

떨하는 어느정도 전형적인 성격의 비극적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비해서, Shakespeare의 비극적 주인공은 기독교적 이념에 입각한 어느정도 제한되기는 하지만 자유의지와 더불어 독립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죄의 대가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혼자서 지게 된다. 그러므로 Shakespeare의 주인공의 고난의 양상은 더욱 강렬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런 와중에서 비극적 주인공이 고난에 대해 의연하고 고결한 반응을 보이면서 마침내 모든 과오와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경이감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Bradley가 말하는 'the sense of waste'²⁾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극의 주인공은 가장 혹심한 절망속에서 깨달음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며, 결말에 가서는 그가 갈망하던 것을 얻게 된다. 즉, 비극적 주인공의 죄의 대가는 고난을 가져오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대가와 진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윤리적 정의의 실현이며 비극적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서 그 행위를 완결짓는 미학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비극의 결말은 비극적 행위의 윤리적 내용으로 보나, 작품의 미학적 균형으로 보나 처음서부터 내재해 있던 운명을 성취하게끔 전체 행위를 되풀이해서 요약, 압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극적 발전과정은 주인공의 원초적인 비극적 결함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여 고난의 과정을 겪은 다음 깨달음에 도달함으로써 비극적 행위를 완결짓는 대칭적 조화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F. Hegel도 이러한 점을 다음과 같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The higher conception of reconciliation in tragedy is on the contrary related to the resolution of specific ethical and substantive facts from their contradiction into their true harmony.³⁾

Shakespeare의 비극작품에 있어서 이러한 고난과 깨달음은 제각기 작품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양상으로 시도되고

2) Bradley, p.16.

3) Friedrich Hegel, "From the Philosophy of Fine Art", *Tragedy: Vision and Form*, 2nd ed., ed. Robert W. Corrigan, (New York: Harper & Row, 1981), p.340.

있다. *Julius Caesar*로부터 시작해서 *Hamlet*, *Othello*를 거쳐, *King Lear*, *Macbeth*에 이르는 비극작가로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고난과 깨달음의 주제의 변화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추구되고 있다. *Othello*에서는 주인공 자신의 비극적 경향보다도 훨씬 비중이 큰 외적인 힘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악을 저지르게 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취급하고 있어 깨달음의 과정은 5막 2장에 국한되어 짧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Macbeth*에서는 주인공이 처음부터 자신의 저지른 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연 다른 깨달음의 양상이 벌어지게 된다. 여기에서는 자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주인공이 거둬들인 악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를 알고 스스로 자신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완강히 저항하는 전연 이질적인 형태가 드러나고 있다. *King Lear*에서는 시작서부터 주인공의 비극적 과오가 여지없이 드러남으로인해 혹독한 비극적 수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의 파국에 이르는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극 작품보다도 그 비극적 의미가 폭넓고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King Lear*에 나타난 고통과 수난의 과정과 주인공 Lear 왕의 죽음으로써 야기되고 있는 비극의 결말은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의 죽음에 얽힌 복잡, 미묘한 의미가 작품 속에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시 말해서 Lear의 정신적인 성장과정을 통해서, 또한 그의 딸 Cordelia의 의문의 죽음과 Lear의 비참한 최후와의 관계를 통해서 과연 주인공 Lear는 깨달음과 구원, 재생을 얻었는가, 아니면 비극적 고통이 더욱 심화된 수난을 겪고 있는가 하는 비극적 주인공 Lear의 자아발견의 양상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야 말로 Shakespeare가 의도적으로 'double death'를 구상한 이면에 숨어 있는 차원높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2. Lear의 정신적 수난의 과정

Lear왕은 어리석음과 폭군적 기질에 의해서 그의 모든 권력, 재산, 그리고 자식들까지 잃고 홀로 남게 된다. 오직 슬픔과 억울함, 자식에 대한 비정함만이 가득차 있을 따름이다. 그는 늙고 의지할 곳이 없는 외톨이 신세로 전락했으며 도움을 청할 자식이나 신하라고는 모두가 떠나버린 상태이다.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늘의 신에게도 외쳐 보지만 모두가 허사이다. 그래서 Lear는 터질 듯한 마음을 움켜쥐고 미칠 것만 같은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여 비바람이 난무하는 황야의 폭풍우 속으로 뛰쳐 들어가게 된다.

비바람은 늙은 Lear의 백발을 찢고 늙어버린 육신을 내려친다. 이러한 폭풍우는 Lear의 절박한 심정과 일치하여 그의 분노와 복수심을 대신 불러 일으키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그의 고통을 잊게해주는 대상이 되어 사정없이 퍼붓는 비바람에 시달리면서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는 Lear가 베푼 것에 대한 댓가를 받아내려는 유치한 사고방식을 아직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⁴⁾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악한 두 딸 Goneril과 Regan 같은 부류인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는 노예처럼 서있는 불쌍하고 연약하며 멸시 받는 늙은 자신을 의식하면서 연민에 젖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Fool이 비웃는 소리를 들으며 폭풍우 속을 헤메던 Lear는 아무리 울부짖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벽찬 가슴속에서 불현듯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는 듯이 말한다. "No, I will be the pattern of all patience; I will say nothing."(III.ii.37-38)⁵⁾ 그렇지만 Lear는 가슴속에서 치솟는 원통함을 참지 못하여 "깊숙히 드리워져 그 모습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는 온갖 죄악이 밝혀져서 심판의 채찍을 받으라고"(III.ii.51-53) 외친다. Lear는 이제서야 세상에 나타나 있는 외형들이 얼마나 진실과 동떨어져 있는가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는 비바람으로 인해 번드레한 걸치레를 벗어버리고 마음속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자신의 불행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대해 억

4) L.C. Knights, *Some Shakespearean Themes* (London: Chatto and Windus, 1960), p.101.

5) Kenneth Muir, ed., *King Lear: The Arden Shakespeare* (London: Methuen, 1975), 본문 인용은 이 Text에 의함.

울하고 분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내가 남에게 죄지는 것보다 남이 나에게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III.iii.59-60)라고 원망한다. 비록 이러한 연민에 사로잡혀 있지만 Lear는 자신이 학대한 Cordelia, Kent 공작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솔한 반성과 뉘우침이 없다. 오직 자신이 당한 것만이 원통하고 분통이 터질 뿐이며 복수욕에 빠진다. 그래서 Lear는 이러한 심정과 자기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의 정신은 미쳐 가기 시작한다.

Lear의 정신세계는 점차 차원 높은 곳으로 광기와 더불어 발전해 나아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인다. 이러한 Lear의 정신적 성장은 Fool과의 만남이다. 비를 맞고 떨고 있는 Fool이 눈에 보이자 얼마나 추울까 하고 처음으로 남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Fool과 함께 수난의 고통을 겪는 동안 그는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진솔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남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정을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Come on, my boy. How dost, my boy? Art cold?
I am cold myself. Where is this straw, my fellow?
The art of our necessities is strange.
And can make vile things precious. Come, your hovel.
Poor Fool and knave, I have one part in my heart
That's sorry yet for thee. (III.ii.68-73)

또한 Lear는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Kent가 인도하는 대로 오두막집으로 가는 도중에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견디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데, 늙고 힘이 없으며 마음을 준 아버지를 이러한 폭풍우 속으로 내몰아 쫓아버린 Goneril과 Regan이 미칠 듯 야속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Lear는 상처받은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 참고 견디어 나가려고 한다. 폭풍우는 여전히 거세고, 그의 마음속에 번개치는 듯한 섬광으로 해서 바깥세계의 폭풍우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조용히 부드럽게 Kent에게

말을 건넨다.

Prithee, go in thyself, seek thine own case:
This tempest will not give me leave to pender
On things would hurt me more. But I'll go in.
In, boy; go first. You houseless poverty,
Nay, get thee in. I'll pray, and then I'll sleep. (III.iv.23-27)

그는 기도하고 잠자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도는 자기연민에서 나온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세상의 고통을 느끼고 또한 슬퍼하면서 하는 것이다.

Poor naked wretches, whereso'er you are,
That bide the pelting of this pitiless storm,
How shall your houseless heads and unfed sides,
Your loop'd and window'd raggedness, defend you
From seasons such as these? O! I have ta'n
Too little care of this. Take physic, Pomp;
Expose thyself to feel what wretches feel,
That thou mayst shake the superflux to th'm,
And show the Heavens more just. (III.iv.28-36)

이러한 대사에서 나타나듯이 Lear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남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며, 진정한 자아성찰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기도에서 "O! I have taken too little care of this"라고 자신을 반성하면서 불쌍하고 험벗은 사람들의 사정을 아직까지 헤아려 주지 못했던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된다. 또한 공정한 하늘의 정의를 이 기도에서 구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확대한 딸들을 복수하기 위하여 Appollo, Jupiter, Jove 등에게 호소하면서 자기 편이 되어서 두 딸들에게 천벌을 내려 달라고 기원한다. 어쨌든 Lear는 이미 이 폭풍우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고난과 동정을 나누는 동안 그의 정신 세계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해 나갔다. 지금은 복수를 위한 원시적인 magic에 의존하거나 기원하지도 않는다.⁶⁾ 오히

려 이 세상 전체를 공정하고 평안하게 다스릴 우주의 신의 정의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Lear의 정신세계가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게 된 계기는 폭풍우 속에서의 오두막집에서 만난 벌거벗은 미친 거지 Tom이었다. Tom과의 만남 그 자체는 Lear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충격이다. 거지 Tom을 만나자, "What! has daughters brought him to this pass? / Could thou save nothing? Would'st thou give'em all?"(III.iv.62-63)라고 자신과 동일시한다. Lear는 Tom에게서 자기자신의 실제의 모습과 비정한 현실을 바라본 것이며, 계속되는 폭풍우 속에서 비정하고 가혹한 현실의 실체인 Tom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비바람을 맨몸으로 맞고 있는 광인 거지 Tom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바라본 "the thing itself"라 할 수 있다. 이제 Lear는 거짓없이 현실을 진솔하게 대할 수 있으며 세상의 부정부패, 가식을 비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Ha! here's three on's
are sophisticated; thou art the thing itself; un-
accommodated man is no more but such a poor,
bare, forked animal as thou art. Off, off, you lend-
ings! Come; unbutton here. (III.iv.103-107)

이렇듯 Lear는 Tom을 통해서 아직껏 발견하지 못했던 진실을 찾은 것이며 외적인 가면을 벗어버린 진실한 "the thing itself"이야말로 소중한 인간의 본질임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허식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진실 그 자체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⁷⁾ 이와 더불어 계속 심하게 휘몰아치는 폭풍우 또한 Lear의 정신상태를 꾸준히 상승시켜 주는데, 극도로 팽창했던 그의 심경은 파괴되어 자신의 정신을 뜯어내듯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벗어 버린다. 이처럼 옷을 벗어버리는 행위는 세속적인 현실세계에

6) Knights, p.91.

7) Bradely, p.292.

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는 의미로서 재산, 지위, 권위, 명예를 포기하고 심지어 그의 정신세계마저도 파괴된 정신이상 상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발광한 Lear는 갑자기 Goneril과 Regan의 재판을 구경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Tom을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두 딸(she-foxes)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는 딸에게서 버림받은 억울한 자신의 정신세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다. 즉, Lear는 겉으로는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지이지만 진실의 모습인 Tom으로 하여금 허상의 모습인 두 딸을 심판하게 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 재판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의와 진리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제정신을 잃어버린 Lear는 호화로운 왕의 옷차림을 벗어 버리고 해피한 모습의 야생화로 단장한 채로 Dover 근처의 황야에 나타난다. 이 곳에서 그는 두 눈알을 뽑힌 채 거지 Tom에게 이끌려 오는 장님이 돼버린 Gloucester를 만난다. Gloucester는 Dover 근처의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려다 실패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서 돌아오는 길이다. Lear는 이러한 Gloucester를 만나자, “하! 흰 수염이 달린 Goneril이로구나”(Iv.vi.95)라고 소리친다. 그는 이처럼 Gloucester를 Goneril로 착각하고 과거의 Gloucester의 악행을 Goneril과 동일시함으로써 현실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점차 맑아져 아첨과 진실을 진정으로 식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것이다.

They flattered

me like a dog, and told me I had the white hairs in
my beard ere the black ones were there. To say 'ay'
and 'no' to every thing that I said! 'Ay' and 'no'
too was no good divinity. When the rain came to
wet me once and the wind to make me chatter,
when the thunder would not peace at my bidding,
there I found'em, there I smelt'em out. Go to, they
are not men o'their words: they told me I was every
thing; 'tis a lie, I am not ague-proof.

(IV.vi.96-105)

이러한 자아반성의 과정을 통해서 Lear는 전지전능하다고 아침꾼들이 자신의 비위를 맞추어 주던일, 폭풍우 속에서 비를 흠뻑 맞고 떨면서 천둥더러 잠잠하라고 명령해 보아도 천둥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비로소 아침꾼들의 속과 겉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일, 그리고 그 역시 학질에 걸릴 수 있는 인간이기에 전지전능하다는 말도 결국은 아첨이고 거짓이라는 사실등을 깨닫게 된다. 이와 더불어 Lear는 남을 용서하는 능력까지 터득하게 된다. 두 눈을 뽑힌 채 죄인처럼 끌려가던 Gloucester가 Lear의 음성을 듣고 왕이 아니냐 라고 묻자, 그는 "I pardon that man's life, what was thy cause?/Adultery?"(IV.vi.109-10)라고 말한다. Lear는 여기에서 Gloucester의 과거의 죄목을 묻기 전에 그 사람의 생명보존을 허락하는 도량을 보인다. 이러한 발광상태에서 Lear는 Edgar의 말대로 "reason in madness"(IV.vi.173)를 갖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육안이 아닌 심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맹인 Gloucester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짐승만도 못한 세상사람들, 탐욕과 매음과 채찍질하는 잔인한 관리들의 횡포, 고리대금업자가 사기꾼을 목졸라 죽이는 잔인한 현실, 최악이 황금갑옷을 입고 정의의 창을 무찔러 버리는 비정한 현실등, 이러한 현실세계를 그는 직시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덩어리의 인간세상을 바보들이 우굴거리며 서로 물고 뜯는 하나의 커다란 무대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무대에서 인간들은 운명의 장난감이 되어 울며 지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여기에서 Lear는 두 딸을 심판하는 장면에서의 개인적 복수심을 넘어서, 이제는 부패한 인간세계를 개탄하며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호소하고 있는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한 현실세계의 진정한 대변인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혹독한 고통과 수난의 과정을 겪은 후에 Lear는 4막 7장에서 Cordelia와 재회하는데, 이 장면에서 그는 그녀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비는 가장 감동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⁸⁾ Lear

8) Francis G. Schoff. 'King Lear: Moral Example or Tragic Protagonist?'

는 그 이전과 비교해서 완전히 변신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폭풍의 황야를 헤메다가 Cordelia의 사람들에게 의해 구출되어 휴식을 취한 다음 새옷으로 갈아입은 그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새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몽롱한 의식속에서 자신이 죽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말한다.

You do me wrong to take me out o'th' grave.
Thou art a soul in bliss; but I am bound
upon a wheel of fire, that mine own tears
Do scald like molten lead. (IV.vii.45-48)

오랜 잠에서 깨어난 그가 죽음의 환상에 빠져 있다는 것은 얼마후에 닥쳐올 실지 죽음에 대한 전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악한 딸들에게서 쫓겨난 후의 겪은 혹독한 심신의 고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a wheel of fire'라는 대사가 암시하고 있듯이 Lear는 두 딸 Goneril과 Regan의 배은망덕에 분개해서 미쳐버렸지만 1막 4장에서 이미 밝혔듯이 Cordelia에게 저지른 과오를 뉘우치고 이에 대한 자책감때문에 얼마나 감당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는가를 'Ixion의 신화'⁹⁾의 불바퀴의 이미지로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그는 권세를 희롱하던 늙은 폭군의 모습과 달리 아름답고 진실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함으로써 마음의 눈과 더불어 정신세계도 온전하고 진실되게 다시 태어난 것이다. 깊은 암흑의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아름다운 음악소리를 들으면서 "a soul in bliss"와 같은 Cordelia를 마주하고서 "You must bear with me. / Pray you now, forget and forgive: I am old and foolish."(IV.vii.83-84)라고 참회한다. Lear는 진정으로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아는 겸손한 인

Shakespeare Quarterly, 1962, No.2, p.167.

9) Rolf Soellner, 'King Lear and the Magic of the Wheel', Shakespeare Quarterly, 1984, No.3, p.282.

"Ixion의 신화에서 Jove로부터 은혜를 받은 Ixion이 Juno를 유혹하려한 배은망덕에 대한 징벌로서 불의 바퀴에 묶여서 고문을 당했다는 이미지를 Lear는 사용하고 있다."

간으로써 폭군적인 욕심으로 눈이 멀지도 않고, Cordelia의 사랑을 거절하거나 무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인간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Cordelia의 군대가 패배함으로써 이들의 행복은 잠시 뿐, Lear는 Cordelia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또 하나의 고통이요 수난이다. 이는 과거의 그의 어리석음과 폭군적 행위에 대한 죄의 대가를 다시 한번 치르게 되는 의식이라 할수 있는데, 이러한 고통의 와중에서 Lear는 Cordelia의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다시한번 참회의 기회를 맞게 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사랑하는 Cordelia와 함께 있는 감옥이야말로 그에게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천국처럼 느끼게 되고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오히려 사랑이 없는 바깥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는 모든 욕망, 욕심을 버리고 Cordelia를 참되게 사랑함으로써 삶의 극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이야말로 Lear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진실이요, 기쁨이다. 이제 그는 권세와 영광, 분노와 초월하기 힘들었던 복수심도 모두 버릴 수 있게 되었다. 두 딸을 만나 보겠느냐는 Cordelia에게 Lear는 이렇게 대답한다.

No, no, no, no! Come, let's away to prison:
 We two alone will sing like birds i'th'cage:
 When thou dost ask me blessing, I'll kneel down,
 And as of thee forgiveness: so we'll live,
 And pray, and sing, and tell old tales, and laugh
 At gilded butterflies, and hear poor rogues
 Talk of court news; and we'll talk with them too,
 Who loses and who wins: who's in, who's out:
 And take upon's the mystery of things,
 As if we were Gods' spies: and we'll wear out,
 In a wall'd prison, packs and sects of great ones
 That ebb and flow by th'moon. (V.iii.8-19)

Lear는 황야에서 홀독한 고난을 통해서 그의 정신세계는 성숙해 갔고 길을 뚫고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을 만큼 그의 마음의 눈이 트였

던 것이다. 지금 Lear가 원하는 바는 Cordelia와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며 생활하는 것, 누가 세력을 얻고 잃었는가 하는 궁정의 소식을 웃으면서 듣고 함께 정담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밀물과 썰물같이 흥망성쇠가 오고가는 세속적인 상황보다는 감옥에서의 삶이 더 즐겁기 때문에 Cordelia와 함께 지내는 감옥에서의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되길 바랄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Lear에게서 볼 수 없었던 한 인간의 안정되고 진솔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로운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행복도 잠시 뿐이다. Cordelia가 감옥에서 의외의 죽음을 맞게 되자 그의 심적, 정신적 상황은 급박하게 반전되고 만다. 그녀의 죽음으로 해서 Lear의 정신세계는 완전히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다. 사실 Cordelia는 Lear의 생명을 지속시켜 주고 인도해 주는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이제 그의 팔에 안긴 Cordelia의 시체는 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며 온갖 세상만물이 일시에 파멸하는 듯한 엄청난 공포와 공허감을 가져다 주게 된다. 그렇지만 Lear는 이러한 믿을 수 없는 현실속에서 Cordelia가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하고 시험해 본다.

I know when one is dead, and when one lives:
She's dead as earth. Lend me a looking-glass:
If that her breath will mist or stain the stone,
Why, then she lives. (V.iii.259-62)

Cordelia의 입술에 갖다댄 거울이 그녀의 입김으로 흐려지면 살아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Lear가 지금껏 겪었던 끔찍한 고통과 번민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 그렇지만 Lear의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Cordelia의 죽음은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앞에서 Lear는 죽은 Cordelia를 쫓아 가듯이 부르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기를 애원해 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결국 이제껏 잠지 회복되었던 그의 감각도 그 기능을 잃게 되는데, 눈앞에 전개된 현실을 잠시 잊고서 Kent 공작과 이야기하던 Lear는 자신의 품안에 있는 Cordelia의 시체를 확인하고서 또다시 미쳐 버

런다.

And my poor fool is hang'd! No, no, no, life!
 Why sould a dog, a horse, a rat, have life,
 And thou no breath at all? Thou'lt come no more,
 Never, never, never, never, never! (V.iii.304-307)

"Never, never, never, never, never!"라고 다섯번이나 되풀이하는 절망감 속에서 Lear의 정신적 세계는 완전히 파멸하게 된다. Cordelia의 죽음은 그의 최후의 희망이자 보루가 일시에 무너져 버린 것이며, 이 세상을 단단히 묶고 있었던 한가닥 희망의 줄도 끊어져 버린 것이다. 이렇듯 혼미한 정신상태에서 Lear는 Cordelia의 입술에서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기미를 포착한 듯이, "Do you see this? / Look on her, look, her lips, / Look there, look there!" (V.iii.310-11)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최후를 맞이한다.

3. Lear의 자아발견의 양상

이러한 마지막 장면에서 Shakespeare는 어떤 비극적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을까? *King Lear*의 결말부분에 나타난 Lear의 죽음에 대해서 평자들마다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Lear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양면적인 측면에서 함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깨달음을 통한 'redemption'의 입장과 수난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는 'pessimism'의 입장에서 규명해 보는 것이 Shakespeare의 의도에 보다 접근하는 길이 될 것이다.

먼저 일반적으로 알려진 Lear의 구원을 강조한 Bradley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d, finally, though he is killed by an agony of pain, the agony in which he actually dies is one not of pain but of ecstasy. Suddenly, with a cry represented in the oldest text by a four-times repeated

'O', he exclaimed;

Do you see this? Look on her, look, her lips,

Look there, look there!

These are the last words of Lear. He is sure, at last, that she lives: and what he said when he was still in doubt?¹⁰⁾

여기에서 Lear는 마지막 순간에 Cordelia가 살아 있음을 확신했다고 Bradley는 지적하면서, 아울러 그녀가 틀림없이 살아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Lear는 비록 눈을 감았지만 죽음에 이르는 그의 충격은 고통과 수난이 아니라 승화된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King Lear*의 제목을 심지어 *The Redemption of King Lear*라고 바꾸어 마땅하다는 제안까지 하고 있다.¹¹⁾ 이러한 그의 redemption적인 입장은 Edward Dowden이 지적한 'purification'¹²⁾이나, O.J. Campbell이 "a form of salvation more Christian than Stoical"¹³⁾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 Knights의 "Complete endorsement of love as a quality of being"¹⁴⁾이나, G.W., Knight의 "the primary persons, good and bad, die into love"¹⁵⁾라는 주장도 이러한 구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Cordelia의 입술을 보고서 Lear는 그녀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감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발광한 상태에서 Lear는 Cordelia의 생명을 확인하고서 최후를 평안히 맞이했다고 본다면 이는 단순한 의미의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Lear는 재산, 권위, 명예, 지위 그리고 정신까지도 잃어버린 채 폭풍우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는 진실을 볼 수 있는 'reason in madness'의 소유자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제 그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Cordelia를 잃은 그가 다시 발광하여

10) Bradley, p.241.

11) Bradley, p.235.

12) Edward Dowden, *Shakespeare: A Critical Study of His Mind Art* (London: Routledge, 1875), p.267.

13) O.J. Campbell, "The Salvation of Lear", *The Journal of English Literary History*, XV (1948), 109.

14) Knights, p.118.

15) G.W. Knight, *The Wheel of Fire* (London: Muthuen, 1970), p.206.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가는 순간에 그녀의 시체에서 생명체를 감지했음은 착각이나 환상이 아닌 또 하나의 새로운 '진실'이라 해야 할 것이다. Lear는 그녀의 죽음이 던져 준 고통의 극치에서 자신의 정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육체의 생명까지 잃어버렸다. 이 순간 그는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느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life in death"를 찾은 것이다. Cordelia에게서 새롭게 찾은 생명은 그가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수난을 메꾸어 주고도 남을 만큼의 새로운 기쁨이었다. Lear는 고통의 극치에서 살다가 죽은 Cordelia를 품에 안고서 기쁨으로 최후를 맞이했다¹⁶⁾라는 L. Lerner의 주장은 지금까지 설명한 Lear의 죽음의 redemption적인 입장을 적절하게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또한 John F. Danby는 Lear의 최후를 Cordelia의 죽음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Cordelia를 "the apex of Shakespeare's mind"¹⁷⁾라고 규정하면서 그녀의 완벽한 진실, 정의, 사랑은 "New Jerusalem"¹⁸⁾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Cordelia와 Lear의 죽음을 단순히 시간의 세계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세계를 초월한 진실과 사랑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구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Lear의 죽음을 이처럼 redemption의 입장에서 해석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주제가 수난을 통한 깨달음, 구원, 또는 재생이라는 비극의 일반적인 명제하에서 정신적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Lear의 정신적 재생이 이루어졌음은 물론이요, 이러한 비극적 결말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질서와 규칙이 재확립되고 회복되었다는 기독교적, 낭만적 규범에 가까운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Shakespeare의 비극작품에서 Fortinbras가 Hamlet을 계승하고, Malcolm이 Macbeth를 몰아내고, Venice의 법이 Iago를 처벌하고, Othello가 자결함으로써 그 비극의 의미를 한층 더 강조하게 되듯

16) Laurence Lerner, *Shakespeare's Tragedie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3), p.148.

17) John F. Danby, *Shakespeare's Doctrine of Nature: A study of King Lear* (London: Faber and Faber, 1948), p.128.

18) Danby, p.138.

이 외형적인 질서의 회복은 일단 정리되는 셈이다. 예외없이 King Lear에서도 비록 Cordelia는 무고한 죽음을 당하고 Lear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주체세력인 Albany 공작과 Edgar가 살아남아 있다는 데에서 Lear의 구원의 가능성은 크다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은 Cordelia의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Lear의 구원의 의미는 더 한층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기독교적, 낭만적 분위기에서 벗어난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Lear가 구원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난의 고통이 더욱 심화된 결과를 짐작할 수가 있다. J. Stampfer는 Lear의 마지막 대사가 있기 전에 이미 Lear는 같은 장면에서 똑같은 환각상태가 서너번 되풀이 되고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Lear가 죽은 Cordelia의 시체를 안고 등장해서 읊조리하는 장면을 예로 들고 있다.

She's gone for ever!
I know when one is dead, and when one lives;
She's dead as earth, Lend me a looking-glass;
If that her breath will mist or stain the stone,
Why, then she lives. (V.iii.258-62)

이 장면의 심층적 측면에 놓여 있는 Lear의 심적인 긴장상태는 바로 Cordelia의 죽음의 사실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인식과 그러한 사실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긴장은 끝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¹⁹⁾ Lear가 광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현실을 파악하려고 함은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파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Cordelia의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She's gone for ever / She's dead as earth"라고 되풀이 하면서 다짐하는 대사가 바로 이러한 사실의 직시라는 냉엄한 현실을 강조하는 것이

19) J. Stampfer, "The Catharsis of King Lear", *Shakespeare Survey*, 13 (1960), 2-10.

요, 한편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싶은 절대적인 욕구가 그로 하여금 ‘거울’을 찾게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Cordelia의 생명을 확인해야 하겠다는 Lear의 욕구로 말미암아 Cordelia의 입술에 거울을 갖다 대고 새털을 움켜잡기 위한 최후의 필사적 노력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 might have sav'd her: now she's gone for ever!
Cordelia! Cordelia! Stay a little, Ha!
what it's thou say'st? Her voice was ever soft,
Gentle, and low: an excellent thing in woman. (V.ii.269-72)

여기에서 “She's gone for ever!”라는 절대적인 사실의 인식과 “Ha!, / What it's thou say'st”라는 환각상태와의 교체가 또 한번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절망과 희망의 환각상태가 연속적으로 교체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cycle이 결국 최후의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

No, no, no, life!
Why should a dog, a horse, a rat, have life.
And thou no breath at all? Thou'lt come no more,
Never, never, never, never, never!
Pray you, undo this button. Thank you, Sir.
Do you see this? Look on her, look, her lips,
Look there, look there! (V.iii.304-10)

다시한번 사실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과 견디기 힘든 현실과의 압력에 대한 불균형으로서의 환상의 교체라는 cycle이 되풀이 되고나서 Lear는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이처럼 실제와 환각과의 cycle에서 우리나라는 Lear의 정신세계는 결코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만일 그에게 있어서의 광기가 차원 높은 “reason in madness” 이라면, 이런 광기와 절망과 헛된 희망과의 순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Lear는 어떻게 Cordelia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서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었을까? Lear가 환각이나 혼돈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의 비극적 결말에 대한 Shakespeare의 숨은 의도는 반감되

는 결과가 아닐른지 모른다. 그래서 J.K. Walton은 Lear의 마지막 대사가 단순히 슬픔에서 즐거움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Lear의 성격발전은 자기 자신과 주변현실의 상황, 그리고 인간과 우주에 관해서 일체의 가식을 떨쳐버리고 난 후의 순수함의 무지로부터 지혜를 얻게되는 과정이며, 또한 그러한 인간적 성장의 결과로해서 Lear는 자신의 의식의 확대를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실천적 행동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⁰⁾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에 Cordelia가 살아 있다는 환각을 갖고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주장은 오히려 비극의 주인공의 내면적 성장을 역으로 몰고가는 결과밖에 되지 못할 것이요, 악을 대표하는 Goneril, Regan, Edmund와 같은 인물과 Lear를 구별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R.G. James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서 수난의 고통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폐허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The play seems to be designed to exhibit suffering, and helpless virtue, whether it be the virtue of a Kent, the uncertain virtue of a Lear, or the transcendent virtue of an Edgar and a Cordelia. None of them of them may come to any happiness... Shakespeare contrives to allow his virtuous characters as little influence on the course of events as possible; he holds them in a kind of silent and helpless suffering.²¹⁾

*King Lear*에서는 무엇보다도 선과 악이 거의 비유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double death'의 궁극적인 moral idea를 생각치 않을 수 없다. 즉, Lear의 수난과 고통의 의미는 그의 깨달음 혹은, 자아인식의 확인과정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회복에 있다 하겠다. 그렇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일단 상실되고 난 후에 또 다시 회복하는 길이란 오직 불행과 정면대결을 취함으로써 그 가치의 초절성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비극의 세계를 이룩하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경험을 인정, 수용함으로써 하나의 성숙된 인간으로 발전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20) J.W. Walton, "Lear's Last Speech", *Shakespeare Survey*, 13 (1960) 111-19.

21) D.J. James, *The Dream of Learning* (Oxford: The Clarendon P., 1951), p.111.

이렇듯 *King Lear*의 결말이 주는 수난과 고통의 의미는 pessimism의 여운을 보다 더 질게 해주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의 세계를 인지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의미있는 질서와 정의가 행해지기로 목계가 이루어진 세계 즉, 하나의 도덕적 질서를 전제하더라도 이러한 목계가 어떤 계기로 해서 깨어져 버렸을 때 또 다시 회복한다는 기약은 확신할 수 없는 일이다. Stampfer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두렵고 불투명한 기약없는 세계에 살게 된지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And with Lear's death, each audience, by the ritual of the drama, shares and releases the most private and constricting fear to which mankind is subject, the fear that penance is impossible, that the covenant, once broken, can never be re-established, because its partner has no charity, resilience, or harmony—the fear, in other words, that we inhabit imbecile universe.²²⁾

이러한 입장은 John Holloway가 지적하고 있듯이 Lear는 끝까지 자신의 과오를 깨닫지 못한채 Cordelia가 살아있다는 거짓 믿음을 지니고 최후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King Lear*는 “고통이 끝났다고 확신되는 순간에 또다시 고통이 극에 달하도록 되풀이”²³⁾되고 있는 극이며, 기독교적 해석에 반대하면서 Northrope Frye가 “The end of a tragedy leaves him alone in a waste and void chaos of experience with a world to remake out of it”²⁴⁾라고 주장하는 비극의 결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3. 결 론

22) Stampfer, p.14.

23) John Holloway, *The Story of The Night: Studies in Shakespeare's Major Tragedi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2), p.91.

24) Northrope Frye, *Fools of Time: Studies in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Oxford Univ. p., 1967), p.120.

Shakespeare의 비극에서 도덕적 질서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악이 아무리 비인간적이고, 비사회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총체적 질서의 외곽에 존재하지 않고 그 내부에 항시 존재한다. 만일 악이 질서를 공격함으로써 그 일부를 파괴하는 행위는 그 자체를 공격, 파괴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악이 자멸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Goneril, Regan, Edmund는 선의 대상으로부터 복수나 응징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음모와 계략에 빠져 자멸하고 말았다. 이처럼 악은 공격에 대해서 그 반격이 자율적인 점에서 *King Lear*는 우리에게 도덕적 질서라는 정의를 연상시켜 주었다. 그렇다고 악이 선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것은 절대 못된다. 선일지라도 악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도덕적 질서의 제재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Lear의 정신적 성장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음과 구원을 얻었는가 아니면 수난의 고통이 지속된 상태였는가 하는 문제는 미묘한 점이 있지만, "As flies to wanton boys, are we to the gods, / They kill us for their sport" (IV.i.35-36) 라고 Gloucester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반드시 어떤 질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덕적 사회 혹은 우주라고 나타내 줄만한 뚜렷한 증거가 확실치 않는 pessimism적인 여운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극 전체를 유지해 주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는 Lear의 인간적, 정신적 시련을 통해서 그의 진정한 깨달음과 자아인식이 이루어졌지만, 극의 결말에 와서는 그 암시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러한 깨달음조차도 이런 비극의 세계에서는 매우 위태롭고 오랫동안 지탱할 여력조차 없다는 인상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이는 Lear의 깨달음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Cordelia라는 순수한 가치의 희생이 수반되었지만, 어쩌면 인간 세계 자체가 하나의 불투명한 세계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공허함을 갖게 한다. 다시 말해서 결국에 가서는 아무리 악이 자멸되고 근절된다 할지라도 미덕 자체는 매우 불안하고 불투명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간세

계에서 선과 악은 항시 공존해 있으면서도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없는 위태롭고 불분명한 균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Lear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의 대가를 받았고 자기 발전과 자아인식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King Lear*는 Shakespeare의 다른 작품과 달리 비극적 주인공이 사회와는 별로 화합하지도 않고 무관심한 채로 최후를 맞이하는 Shakespeare의 최초의 비극이며, 비극 자체가 도달할 수 있는 상황까지 몰고 간 비극중의 비극이다. Lear의 결말에 대한 해석이 어떤 분위기나 입장에서 이루어지든간에 제각기 음미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Lear의 마지막 대사에 대한 결정적인 답변을 유보한 채 “극의 진행과정은 구원의 입장에서, 반면에 극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²⁵⁾는 P. Rackin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King Lear*의 결말은 “그 어떤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상상력을 촉구할 뿐이다”²⁶⁾라는 S.L. Goldberg의 주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극을 의미있게 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극을 감상하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진솔한 사랑에서 솟아나는 Lear의 견디기 힘든 상실감을 함께 나눌 수 있고 Cordelia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고결함과 조화, 그리고 그것이 Lear를 구원하고 또한 온 세계를 혼란과 고난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5) Phyllis Rackin, "Dellusion as Resolution in *King Lear*", *Shakespeare Quarterly*, 21 (1970), 33.

26) S.L. Goldberg, *An Essay on King Lear*, (Cambridge: Cambridge Univ. p., 1974), p.157.

Bibliography

- Bradley, A. C.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Macmillan, 1974.
- Campbell, O. J. "The Salvation of Lear", *The Journal of English Literary History*. XV. 1948.
- Corrigan, Robert W. (ed.) *Tragedy: Vision and Form* (2nd). New York: Harper & Row. 1981.
- Danby, John F. *Shakespeare's Doctrine of Nature: A Study of King Lear*. London: Faber and Faber. 1948.
- Dowden, Edward. *Shakespeare: A Critical Study of His Mind Art*. London: Routledge, 1875.
- Frye, Northrope. *Fools of Time: Studies in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Oxford Univ. p. 1967.
- Goldberg, S. L. *An Essay on King Lear*. Cambridge: Cambridge Univ. P. 1974.
- Holloway, John. *The Story of the Night: Studies in Shakespeare's Major Tragedies*. London: Routledge, 1972.
- James, D. J. *The Dream of Learning*. Oxford: The Charendon P. 1951.
- Knight, G. W. *The Wheel of Fire*. London: Methuen. 1970.
- Knights, L. C. *Some Shakespearean Themes*. London: Chatto and Windsus. 1960.
- Lerner, Laurence. *Shakespeare's Tragedie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3.
- Muir, Kenneth (ed.). *King Lear: The Arden Shakespeare*. London: Methuen. 1975.
- Rackin, Phyllis. "Dellusion as Resolution in *King Lear*". *Shakespeare Quarterly* 21. 1970.
- Schoff, Francis G. "*King Lear*: Moral Example or Gragic

- Protagonist?" *Shakespeare Quarterly* 2, 1962.
- Soellner, Rolf. "King Lear and the Magic of the World,"
Shakespeare Quaterly. 1984.
- Stampfer, J. "The Catharsis of *King Lear*," *Shakespeare Survey*,
13. 1960.
- Walton, J. W. "Lear's Last Speech," *Shakespeare Survey*, 13.
1960.